KOREA NATIONAL FOOD CLUSTER

FOODPOLIS

2016 / No. 013

COVER STORY

식품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동북아 시장으로 가는 실크로드 국가식품클러스터 교통인프라
식품 안전 보장하는 용수공급 인프라
전기세 벌어주는 선진형 에너지 공급체계 태양광발전설비시스템
글로벌 식품산업문화도시가 열린다 배후복합도시(푸드시티)

EXPERT COLUMN

한국식품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
독일 프라운호퍼IVV 연구소 호르스트 크리스티안 랑고프스키 소장
품질관리 지원업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노봉수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FOODPOLIS
국가식품클러스터

FOODPOLIS

FOODPOLIS

2016 / No.13

04 COVER STORY

식품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 동북아 시장으로 가는 실크로드 국가식품클러스터 교통인프라
- 식품 안전 보장하는 용수공급 인프라
- 전기세 벌어주는 선진형 에너지 공급체계 태양광발전설비시스템
- 글로벌 식품산업문화도시가 열린다 배후복합도시(푸드시티)

10 Expert Column I

한국 식품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

/ 독일 프라운호퍼IVV 연구소 호르스트 크리스티안 랑고프스키 소장

11 Photo Sketch

세계인과 함께 공유한 동북아 식품 허브의 비전

14 Expert Column II

품질관리 지원업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노봉수 교수

15 외국인투자신고기업

Business Friendly Korea, Welcome to FOODPOLIS!

햄튼 그레인즈 / 프라하의 골드 / 골드락 인터내셔널 / 차오마마

19 INFORGRAPHICS

2016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22 국내 입주기업 탐방

기능성 소재 프런티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길을 찾다

(주)네오크레마

24 Power Interview

국가식품클러스터? 최초 혹은 최고를 위한 성공 플랫폼

/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기원 교수

26 해외 입주기업 탐방

한국의 유기농 원료로 세계 시장 도전

햄튼 그레인즈

29 Reserch Report

2015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요 및 인식조사 보고

31 FOODPOLIS NEWS BRIEF

33 투자가이드

FOODPOLIS Frequently Asked Questions

국가식품클러스터

온라인 채널과 함께 하세요!

홈페이지 www.foodpolis.kr

블로그 http://blog.naver.com/foodpolis1

영문블로그 http://foodpolis.info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oodpolis.kr

웨이보 http://weibo.com/foodpolis

CREIDITS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FOODPOLIS 국가식품클러스터

2016 혁신의 골든 타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환 포인트로!

열정과 지혜의 붉은 원숭이해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13번째 소식지로 인사드립니다. 2016년은 FTA를 통한 완전 개방화에 접어드는 해로써 세계 시장의 4분의 3이 개방됩니다. 우리 농식품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 속에 당당히 서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혁신 의지와 폭넓은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수년에 걸친 준비와 국민들의 성원 속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공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동북아 식품산업의 수출전진기지이자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의 상징으로 우리 농식품산업의 향후 30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7월에 품질안전센터, 기능성평가지원센터, 패키징센터 등 종합지원시설을 갖춘 6대 기업지원시설 준공과 2016년 말 산업단지 조성 완료를 앞두고 세계 최초로 탄생하는 정부 주도형 식품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해외언론과 식품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수출 확대 전략을 통해 우리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발전을 성공적으로 견인해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게 된다면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초일류 식품강국으로 이끄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출발을 준비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지와 성원을 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준원

이준원

[식품]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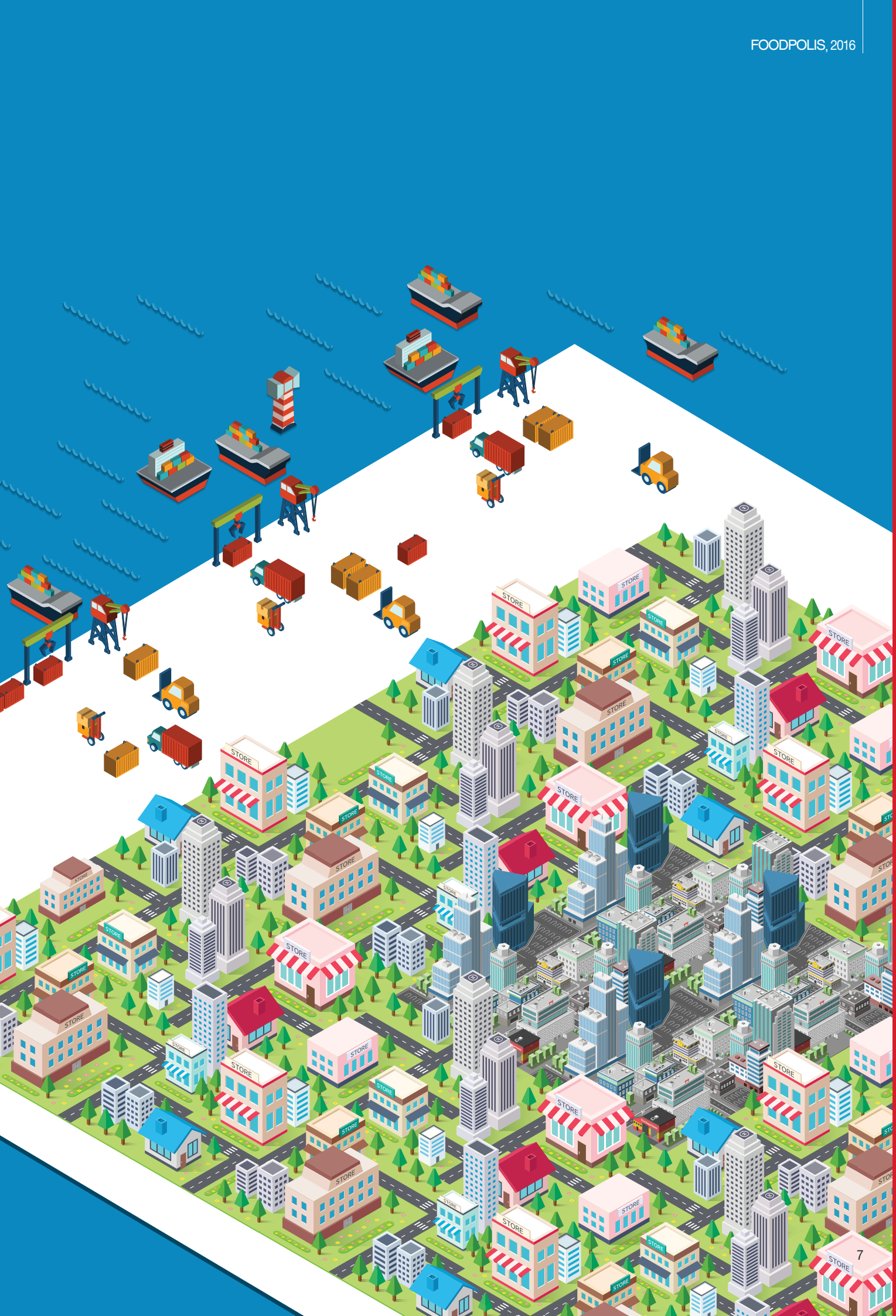
국가식품클러스터란?
Foodpolis

연구개발과 수출 중심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정부가 주도하여 조성하는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R&D센터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을 갖추고 ONE-STOP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식품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기업환경을 제공합니다.

FTA의 발효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상황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식품산업의 육성은 국가 차원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이자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당면 과제다. 내수 중심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 육성에 최적화된 기반 환경 조성과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수다.

국내 식품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015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요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자의 78%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운영 목적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연구개발(R&D)지원 부문을 꼽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고품질의 원료 농산물 공급,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R&D지원시설과 기술력, 원활한 마케팅활동 지원 등 입주기업을 위한 최상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3번째 FOODPOLIS의 Cover Story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준비하고 있는 편리한 교통망과 용수공급 및 에너지 공급 시스템,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에 조성될 글로벌 식품산업문화도시 〈푸드시티〉 계획을 소개한다.


STORE

식품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1 동북아 시장으로 가는 실크로드 국가식품클러스터 교통인프라

식품은 시간, 온도 등 배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환경요인으로 인해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중요하다. 원료 농산물 조달도 용이해야 하지만 많은 물류량을 빠르고,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만, 도로 등과의 거리도 중요하다. 2012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지선정을 놓고 가장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쳤던 부분 역시 교통체계였다. 많은 물류량을 해소해야 하는 입주기업들의 고민을 위해 종합적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교통 인프라를 소개한다.

2012년 입지 선정 당시 익산시의 가장 큰 강점은 우수한 교통체계였다. 김제평야, 호남평야 등 비옥한 농지 접근성이 높아 고품질 원료 농산물 조달이 용이하며 익산 IC까지 불과 3분, 군산항까지는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2015년 호남고속철도(KTX)가 들어서며 서울까지 불과 1시간 거리에 놓이는 등 최적의 교통입지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 식품클러스터인 네덜란드 푸드밸리가 위치한 와게닝겐 지역은 전통적으로 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로테르담 항만과는 10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수상교통, 도로, 철도 등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독일 뒤셀도르프(112km), 암스테르담(85km) 공항과도 인접해 있다. 이렇듯 규모화된 농업 기반과 최적의 교통체계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향후 2020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물류량은 약 9백만 톤으로 예상되며(「국가식품클러스터종합계획안」, 2012)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익산 IC까지 불과 3분
군산항 40분거리
KTX 도입으로
서울까지
불과 1시간
비옥한 농지 접근성까지
최상의 교통입지조건

식품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2 식품 안전 보장하는 용수공급 인프라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기업들에게는 깨끗한 수질의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수다. 특히 식품 제조 · 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식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식수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배관관리 및 배수(配水)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식품위생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어 기업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깨끗한 수질을 위해서는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진 용수저장탱크, 배관 등을 사용해야 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잠금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들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기본계획에 따라 배수 및 송수시설 건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

수질 오염 우려와
수량 확보 어려운
지하수 아닌
용담댐을 수원지로
상수도 공급
최적 수질확보

1급수 생활용수 수원지 확보

용담댐 용수 상수도 공급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와는 달리 수도정비기본계획(2010)에 따라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을 수원지로 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통해 1급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용담댐은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약 150만 명의 주민과 공장, 농지에 9,200만 톤의 생활, 농업, 공업 용수를 책임지는 등 전라북도 지역 물 공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다목적댐이다. 2003년 11월에 1차 완공된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통해 용담댐의 용수가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최적 수질 용수의 안정적 공급 위한

배수지 설치 및 관로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1등급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설치 및 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위치한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일대에는 왕궁 배수지 조성을 위한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왕궁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배수지, 진입도로 및 송 ·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완공 이후에는 왕궁면 및 춘포면 일대에 걸쳐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급수구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계획

배수지 건설	V = 8800m · 3 (금회) V = 2200m · 3 (장래)
송수관로 설치	D = 600mm L = 0.15km
배수관로 설치	D = 500mm ~ 600mm L = 1.5km

식품기업들의 용수사용 현황

식품기업의 경우, 기존 일반산업단지에서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공업용수는 생산과정 등에 사용하는 물로 정수처리 없이 용수에서 불순물을 침전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농공단지 등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는 수질 오염 우려와 수량 확보가 어려워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삼양, 오리온, 하림 등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은 상수도를 공급받아 식품 품목별로 적합한 수질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수과정을 거쳐 사용한다.

식품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3 전기세 벌어주는 선진형 에너지 공급체계 태양광발전설비시스템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국토가 좁고 도로망이 촘촘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향후 전망도 매우 밝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강국이 모여있는 유럽지역과 북남미 시장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이 강세인 상황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입주기업들의 전력수요를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 공급방안과 더불어 환경까지 생각하는 에너지 절약형 청정녹색산업단지를 실현하고자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태양광에너지는 공해가 없고 유지보수가 용이하지만 초기

비용절감효과 높은 친환경에너지로 공급자와 사용자가 모두 Win-Win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만의 차별화된 태양광 비즈니스

투자비 및 발전단가가 높아 일반 기업이 도입하기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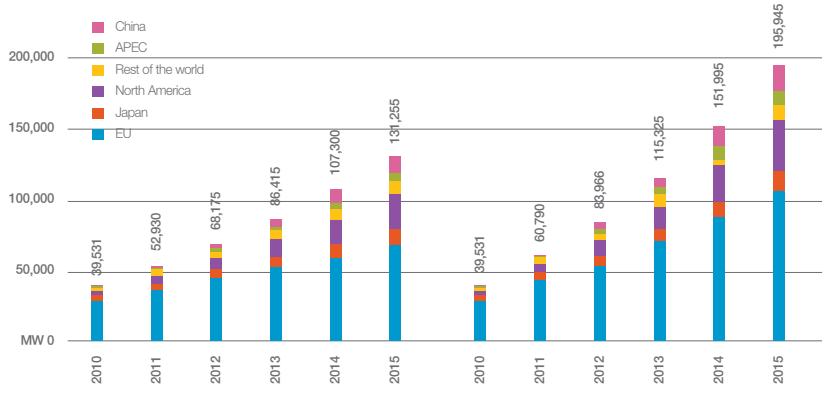
높은 비용절감효과와 더불어 공급자와 사용자가 모두 Win-Win할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만의 태양광 비즈니스 솔루션을 소개한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 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고, 건물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12년간 받고, 그이후 건물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공장 건물 지붕에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4년 9월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와 태양광발전설비시설 사업 설비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물 및 입주기업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된 전력수익 일부를 입주기업에게 돌려주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양광 세계시장 현황



출처 : 유럽태양광산업연합기구(EPIA), 2010

식품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4 글로벌 식품산업문화도시가 열린다 배후복합도시(푸드시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 및 외부 유입인구를 수용하고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식품종사자들이 살기 좋은 배후복합도시(푸드시티)를 만들어 주거, 상업, 교육, 문화 · 관광 등 총 4개 권역으로 구성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식품산업문화도시

푸드시티로 브랜드 가치 높여

최상의 문화환경과 글로벌 주거환경이 결합한 푸드시티는 주거 · 사업 · 교육시설지구와 문화 관광지구로 조성된다.

주거시설지구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갖춘 스마트 주거공간인 주거시설지구에는 한옥마을과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고 · 중 · 저층 주거단지 등이 들어선다. 입주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외국기업과 함께 입주하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공급량 중 일정 부분을 외국인 특별공급 분양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시설 근처에는 도심농장,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도농간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구축된다.

상업시설지구

상업시설지구에는 식품 테마 스트리트 몰, 국가별 식품 쇼핑 공간, 게스트하우스, 숙박시설이 조성된다. 산업단지 종사자와 배후단지 입주자를 위한 의료타운도 조성될 계획이며 특히 외국인을 위한 전담통역 인력 배치 등 글로벌 산업단지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한식거리, 글로벌 식품거리 등 식품산업 특화 상업지역과 함께 세계 식품 유통 · 상업의 거점화 단지 및 체류형 숙박단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교육시설지구

교육시설지구에는 식품관련 특성화고 및 대학교와 글로벌 외국인학교가 설립·유치되고 영어마을도 생긴다. 식품관련 대학원 및 국제 · 한식조리아카데미 등 식품 교육기관이 집적화되며 외국기업 및 연구소 직원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등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을 설립 · 유치할 계획이다.

문화·관광지구

문화 · 관광지구는 식품전시체험관과 식품전문 컨벤션센터, 글로벌식품관, 식품박물관, 미래첨단 식당 등 문화 · 관광행사에 필요한 식품문화테마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식품문화 명소화를 위한 지역별 · 테마별 문화공간을 구축하고 역사 · 문화 · 축제가 조화된 식품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된다. 또한 k-pop 열풍을 테마로 한 축제 및 국제식품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다.

참고자료「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안)」2012

한국 식품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

독일 프라운호퍼IVV 연구소
호르스트 크리스티안 랑고프스키 소장

식품산업에서 소비자의 요구는 광범위하고도 다양하다. 선진국의 경우 저가의 기초농산물 제품부터 장인이 빚는 각종 수제품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 소비자들의 기본적 요구가 고루 충족된다. 기업들도 이에 맞추어 연구개발의 초점을 달리 한다. 기초농산물 제품 생산기업은 보다 저렴한 원료의 활용 및 공정 최적화에 집중하고, 수제품 생산기업은 특정 제품 혁신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인다. 기초농산물제품과 수제품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은 제품 혁신 방법 및 수익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기초농산물 제품 분야는 주로 비용절감을 중시하는 다국적 대기업이 주도한다. 이 분야는 워낙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서 소소한 개선만 이루어져도 눈에 띄는 효과로 이어진다. 반면 특수 제품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중소기업은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서야 성공 기반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는 제품이 성공했을 경우 훨씬 높은 이윤, 성장률, 인지도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실패해 빛을 보지 못하는 제품도 적지 않다. 보상도 크지만 위험요소도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서로 대비되는 이 두 분야의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 인프라의 현황은 어떠한가? 먼저, 연구 및 교육분야에 있어 일반대학과 기능대학의 역할을 구분하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이와같은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이를 통해 기초농산물 제품 생산기업은 공정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전문기술을 습득한 제품개발자들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다. 공정혁신과 최적화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제품혁신을 위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식품산업 내 재정 지원 정책, 관련 연구 지원 기준, 소통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다는 뜻이다. 특히 제품 혁신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공학, 재료공학, 포장부터 소비자 기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타당한 수준의 식품 품질 및 안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품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개발 공정 전 단계에 걸쳐 이러한 전문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유럽 최대 응용연구기관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의 주요 업무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프로젝트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전문역량을 모으는 것이다. 유럽 각국의 학술기관, 연구기관, 기업과 공조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우리 연구소의 전문성 역시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새로운 협력업체나 기관을 찾느라 혁신 과정이 둔화된다는 단점도 수반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 연구 인프라를 찾기도 힘들었고, 한 곳에서 다양한 전문기관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일럿플랜트,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등 최첨단 기업 지원 시설을 한데 구비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기업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연구시설과 산업시설이 집적된 이 대규모 클러스터는 한국 정부의 선구적인 시도다. 이 진취적 시도에 동참하는 기업들은 큰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혁신과 진화를 거듭하는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보고자 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

1948년에 설립된 프라운호퍼연구회(Fraunhofer-Gesellschaft)는 독일의 대표적인 연구조직으로 현재 독일 내 개별연구소를 포함한 66개 연구소와 24,000여 명의 직원들이 정보통신, 생명과학, 재료, 부품, 전자공학, 생산기술, 표면처리, 광학, 국방,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IVV는 식품재료 및 가공식품 개발, 가공공정 개발, 관능평가, 포장재질 개발, 식품포장용 용기 및 포장재질 안전성 평가, 포장폐기물 재활용, 포장공정 및 포장장비 개발 등의 분야에 특화된 연구소다.

Photo Sketch

세계인과 함께 공유한 동북아 식품 허브의 비전

외신 기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2015년. 일본, 중국, 미국, 독일, 싱가포르, 네덜란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까지 총 8개국의 외신 기자들과 함께한 동행 취재 현장을 화보로 구성했다.

2016년 완공을 앞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은 해외 언론매체는 일본, 중국,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총 8개국의 매체들로서 세계 최초, 정부 주도의 식품클러스터 탄생에 초점을 맞춘 현장 취재를 진행했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임시연구소의 지원 범위 등에 취재가 집중되어 새로운 사업모델로서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관심도와 함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지난 8월 방문한 바 있는 싱가포르 식품전문지 〈아시아푸드저널〉은 11-12월 호에 한국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입주기업인 BTC에 대한 소개를 3면에 걸쳐 보도하기도 했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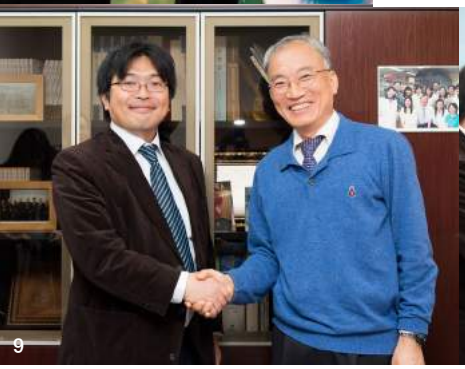
3

1.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대 전망대에 올라 부지를 둘러보는 중국 단위평, 두창융 기자 2.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중국 단위평, 두창융 기자 3. 임시연구소를 방문한 일본 이시카와토루 기자 4.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네덜란드 디온 어빙, 이탈리아 알베르토 치리오티, 말레이시아 비혼세 베 기자 5. 네덜란드 디온 어빙, 이탈리아 알베르토 치리오티, 말레이시아 비혼세 베 기자와 인터뷰를 가진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권오란 교수 6.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둘러보고 있는 네덜란드 디온 어빙, 이탈리아 알베르토 치리오티, 말레이시아 비혼세 베 기자 7. 임시연구소를 방문한 네덜란드 디온 어빙, 이탈리아 알베르토 치리오티, 말레이시아 비혼세 베 기자 8.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네덜란드 디온 어빙, 이탈리아 알베르토 치리오티, 말레이시아 비혼세 베 기자 8. 입주기업 네오크레마 김재환 대표와의 인터뷰를 가진 일본 이시카와 토루(石川透) 기자 9. 일본 이시카와 토루(石川透) 기자와 만난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권대영 박사 10. 2015 코리아푸드트렌드페어 박람회를 방문한 중국 단위평, 두창융 기자

10

4

5


9

8

7

6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은 해외 언론들의 Focus Issue

동북아로 가기위한 길을 기업들에게 제공

미국 〈푸드네비게이터〉〈푸드프로세싱〉

2시간 비행으로 100만 인구가 모여 있는 50개 주요도시로 접근 할 수 있는 산업 허브를 만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대한 계획, 24시간 내에 중국, 홍콩,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한 교통 허브 그리고 유럽, 북미, 아세안 지역 등 50여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주요 식품 기업들은 최적화된 사업 환경은 물론 다양한 혜택들의 잠재적 가치를 눈여겨 볼 것이다.

동북아시아 식품사업가를 위한 기회!

말레이시아 〈포커스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원칙에 필적하는 목표를 내세워 아시아 최초로 정부가 지원하는 식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도입한 한국. 전라북도 익산에 자리한 232ha의 산업단지는 식품산업을 위한 교역기반이자 문화 허브의 역할을 할 것이다.

11

12

13

19

11. 샘표식품의 초청으로 샘표 기술연구소에 방문한 미국 데이브 퓨사로, 리차드 화이트헤드 기자 12. 샘표식품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 에서 미래 먹거리를 맛보는 미국 데이브 퓨사로, 리차드 화이트헤드 기자 13.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싱가포르 아시아푸드저널 데니스 카벨 편집장 14. 한국식품연구원을 방문하여 취재 중인 미국 데이브 퓨사로, 리차드 화이트헤드 기자 1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독일 이안 할리기자 16. 임시연구소 기능성평가지원센터를 방문한 싱가포르 아시아푸드저널 데니스 카벨 편집장 17. 입주기업인 (주)하림 공장을 방문한 독일 이안 할리 기자 18. 입주기업인 (주)BTC를 방문, 김태영 대표의 제품 설명을 듣고 있는 싱가포르 아시아푸드저널 데니스 카벨 편집장 19.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프라운호퍼IVV의 MOU 체결 현장에 참석한 독일 이안 할리 기자

14

18

17

16

15

아시아의 수출 베이스, 국가식품클러스터

이탈리아 〈치리오티 에디토리〉

한국 식품산업의 메카이자 이탈리아 업체들을 위한 기회. 외국 식품제조업체들은 한국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아시아의 수출 베이스로 삼을 수 있으며, 저렴하고 간소화된 세관 절차를 활용해 아시아 이외 지역까지 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oodopolis, la città coreana
ell'alimentare

한국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싱가포르 〈아시아 푸드저널〉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소비시장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식품 업체라면 푸드폴리스에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Editor's Note
Asia Food JOURNAL
Asia's new food cluster
INTERVIEW
Bionics to the Core
KOREA NATIONAL FOOD CLUSTER
Great Food Expectations

세계를 향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일본 〈식품화학신문〉, 중국 〈탕옌주〉 〈중국경제망〉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이웃국가로써 한국의 최대 국제 무역파트너이기도 하다. 중국기업이 한국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한다면 한국시장, 중국시장 및 글로벌 시장의 더 크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다.

食品化学新聞
話題の焦点
韓国フードポリス 16年に本格始働
製造・R&D拠点として誘致進める

품질관리 지원업무 체계를 확립해야한다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노봉수 교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적 식품클러스터로
경쟁력 가지려면
입지조건뿐 아니라
입주기업 비즈니스 위한
환경조성 중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이곳 단지에 입주하는 회사들의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함으로써 보다 고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달려있다. 그중에서도 식품품질안전센터는 품질의 지표가 되는 요소를 분석하는 업무 이외에도 영양성분표시를 위한 성분분석, 미생물 분석을 통한 전문 위생, 식품안전검사, 입주기업의 자가 품질 검사뿐만 아니라 가끔 보도되는 이물식별테스트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며 제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테스트, 수출에 필요한 특수 분석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청하는 할랄식품의 제한 요소분석과 같은 검사부분도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논의가 뜨거운 GMO, 노로 바이러스, 방사선 조사 확인, 환경호르몬(다이옥신), 중금속, 곰팡이독소, 항생제 및 알레르기 분석 등 신종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분석업무들 외에도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맛, 기호도 부분이다. 수출하는 식품의 경우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 따라 분석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식품의 품질을 평가할 때에는 혀에서 감지하는 맛뿐만 아니라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등 오감을 이용한 전체적인 관능적인 요소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 보급되는 원료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체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부분만을 지원하면 가능하나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이들 원재료에 대한 성질과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원만한 지원업무가 가능하다. 아울러 그들이 좋아하는 향미나 식습관에 관한 정보도 파악하고 있어야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조할 수가 있다.

맛이나 향기 성분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향미 성분에 대한 평가 기술을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관능검사요원들을 확보, 훈련시켜 나가는 일 못지않게 이러한 관능검사요원들의 다양한 분석치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자코, 전자눈, 전자혀, GC-O, GC/MS 등과 같은 분석방법과 관능검사요원들의 분석치 간의 상관관계를 확보해 나가는 일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로 건물이 완성되고 연구원들의 입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마련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수출하는 김치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김치가 아니라 수출대상이 되는 국가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맛이나 색상, 디자인,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조사는 외국에서 대규모 시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식품업계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식품업체를 지원할 업무 중에는 관능검사와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모든 식품회사들이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트렌드와 소비자 성향에 관한 정보를 입주업체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분석되어 있어야 하며 여러 기업들에게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한 정보 제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국제적인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한 현지 연구소와의 유대관계도 원만해야 한다. 단순히 MOU를 체결하였다고 모든 일이 다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MOU 체결과 같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를 좋아하지만 외국에서는 준비 작업을 해 나가기 위한 초기 인사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다. 외국의 연구소들과도 상호협력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서로 간에 이익을 창출한 적이 없다면 인사치레에 불과한 MOU 교환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지원업무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차곡차곡 진행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기업과 국내 식품산업분야 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신고기업

Business Friendly Korea
"Welcome to FOODPOLIS!"

2015년 5월 체코 전통맥주전문기업 프라하의 골드가 외국인 투자신고를 완료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6개 해외 식품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선택했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이 기업들은
한국의 우수한 원재료 및 동북아 시장 진출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입주계기로 꼽고있다.

햄튼 그레인즈
Hampton Grains

프라하의 골드
Gold of Prague

골드락 인터내셔널
Goldrock International

차오마마
Clever Mama

햄튼 그레인즈 Hampton Grains

신뢰할 수 있는
정부주도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역수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중

한국 농가와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세대를 넘어선 장기적 비전 동참

햄튼 그레인즈는 밀, 옥수수, 대두, 귀리, 보리 등 곡물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서비스를 진행한다. 미국에서 농장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작은 규모이고, 보통은 아몬드처럼 계약재배나 조합에서 생산된 원료를 구매해 수출을 한다. 필요에 따라 식용유, 밀가루, 과자와 같은 제품생산을 위한 가공도 하지만 대개는 OEM으로 위탁한다.

곡물시장의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햄튼 그레인즈의 글로벌 시장의 위치는 정량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메이저 곡물기업이라 불리는 카길, 에이디엠, 콘아그라와 그 외 일본상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10~20% 정도의 시장이 햄튼 그레인즈와 비슷한 업체들로 구성되고있다. 하지만 햄튼 그레인즈는 메이저 급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생산, 유통, 가공과 관련된 모든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다. 현재 햄튼 그레인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입주 계약을 맺고 동시에 원료 공급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주)푸르메와 한국미곡종합처리장협회 등의 지역 업체들과 협의를 맺었다. (주)푸르메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변에 위치한 혼합 잡곡 전문 생산업체이다. 햄튼 그레인즈가 필요한 곡물 원료를 공급해주고 곡물 이외 다른 작물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동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미곡종합처리장협회는 햄튼 그레인즈와 원료 구매형 상생 협약을 맺어 고품질의 곡물 원료를 제공한다.

프라하의 골드 Gold of Prague

세계 최초 라거맥주 생산국 체코 맥주기업이 동북아시장 진출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생산시설 구축

지난해 맥주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내 수입맥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세계 최초의 라거맥주 생산국인 체코의 맥주 생산기업 프라하의 골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확정하고 국내에 맥주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10세기경 세워진 체코 브제브노프 수도원 양조장의 전통방식으로 맥주를 제조하는 프라하의 골드는 올해 안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에 중소형 맥주 양조시설(500만 리터/연)을 설립해 맥주를 생산하고 본고장인 체코 맥주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견학시설도 설립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에 구축될 양조장은 체코의 숙련된 양조기술자가 직접 관리하며, 체코 전통방식으로 체코의 맥아와 홉, 전북의 깨끗한 물만을 사용해 슈퍼 프리미엄급 맥주를 만들 계획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내에서 맥주 시음회를 개최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루카스 미케스카(Lukas Mikeska) 대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R&D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입주 기업들과의 네트워크가 용이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기점으로 중국 등 동북아 시장에 체코의 전통맥주를 알리고 싶다는 기대를 보였다.

골드락 인터내셔널 Goldrock International

아프리카 대표 커피 생산국인 케냐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경매시스템을 통해 등급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와인맛, 강한 신맛, 과일의 달콤함 등의 독특한 커피맛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케냐의 대표적인 커피 제조기업인 골드락 인터내셔널(Goldrock International)은 마사이커피, 심바, 카드로시아 등의 브랜드로 유럽 등지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차별화된 커피 포장기술은 동종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11월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한 골드락 인터내셔널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면적 2만㎡, 고용인원 100명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등 동북아 시장의 커피 수출을 위한 이번 투자는 R&D지원센터 등 우수한 기업지원시설 프로그램이 주요 투자요인으로 작용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R&D센터 등 기업지원시설과 지원프로그램이 주요 투자요인

차오마마 Clever Mama

안전한 브랜드
한국의 이미지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
중국인 상위 1% 대상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한국의 우수한 원료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산 브랜드
중국에 역수출 계획

중국 식품기업 푸지엔 진지앙 차오마마(CLEVER MAMA, 이하 차오마마)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해외 기업으로는 99번째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번째로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했다. 차오마마는 천연 과즙을 소재로 한 과일푸딩과 호두맛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캐릭터 개발 및 전용 판매대 운영 등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차별화 전략으로 2009년 설립이래 5년 만에 1,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중국 내 신뢰도가 높은 한국식품을 지향 하며 한국의 이미지와 한글을 포장 디자인에 적용하여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쉬 슈슈 차오마마 대표는 한국의 우수한 원료 농산물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 식품을 생산, 한국산 브랜드로서 중국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을 밝혔으며 2017년까지 중국 전역에 3000여 개의 가맹점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으로 역수출하는 동시에 중국 주요 도시에 한국 농식품 전문판매점인 가칭 〈I♡Seoul〉을 개설해 한국의 다양한 농식품 수입, 판매계획도 덧붙였다.

INFOGRAPHICS

2016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2016년 본격화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부지조성 완료(2016년 말 예정)와 6개 기업지원시설 완공(2016년 7월 말 예정) 등 본격화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지원센터로 변경되어 계약부터 입주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며, 외국인투자지역의 본격적 입주에 따라 인력 고용규제 완화 및 기술개발지원 예산의 확대등 다양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입주 및 시설투자 뿐 아니라 해외 판촉, 인력 양성 및 공급, 벤처지원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식품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계획으로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실현하고자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된 2016년도 사업계획을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부지조성 완료

2014년 3월에 착공한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2016년 말 완료되고 입주 희망 기업의 공장 등 건축공사 연내 착공 가능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준공

국가식품클러스터 6개 기업지원시설*이 2016년 7월말 준공

준공이후 과천 및 익산(임시연구소)으로 분리 운영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산업단지로 일괄 이전·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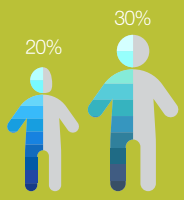
*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임대형공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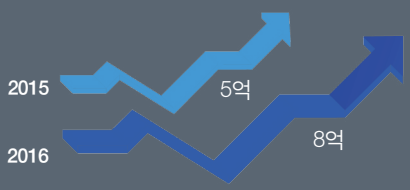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한도가 기존 20 → 30%로 확대

* 해외영업원, 통·번역원



식품기업의 기술지원 확대

기술지원 예산 확대로 많은 식품기업과 공동기술 개발



'15년보다 3억 원 늘어난 8억 원의 기술개발지원 예산확보로 기능성분야·품질안전분야·패키징 분야의 공동기술 연구

* (지원분야) 기능성식품 표준화 및 효능성평가, 맛·향·조직감 등 기호적 품질분석, 식품패키징 안전성평가 및 포장재 재질 설계 등

* (지원기업) 6개기업 → 11개기업(5개기업 증)

입주기업 One-Stop 지원체계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지원센터로 변경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센터로 변경되면 입주기업의 계약부터 입주까지 One-Stop 지원

* 〈(가칭)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부터 시행

외국인 투자지역(FIZ) 입주 시작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 지역에 외국기업 입주

산업단지 내 글로벌식품존의 일부(116천㎡)가 외국인투자지역(FIZ)으로 지정('15.10.12)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공장 건축 가능

* (입주요건)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 외국인투자 금액 1억원이상 &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식품기업의 해외판촉 활동 지원

해외 투자유치관 활용하여 기업홍보 활동 지원 강화

해외 투자유치 활동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관을 활용하여 입주예정기업의 제품전시 및 판촉활동 지원

식품인력 양성·공급 지원체계 구축

식품인력 양성 및 매칭 서비스 실시

식품기업 인력의 역량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단기 기능·전문교육 및 경영자교육 등 3개 교육과정 운영

입주기업 취업박람회 참가지원 및 청년인력 채용을 위한 취업설명회* 개최

* 기업과 연대하여 인근 고교 및 대학 등 방문 설명

식품벤처 지원체계 구축

우수 식품벤처기업 발굴 · 지원 및 기술설명회 등 개최

식품벤처기업 선발대회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임대형공장인 식품벤처센터 입주지원

입주기업·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인증 관련 세미나, 기술설명회 등 실시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 입주기업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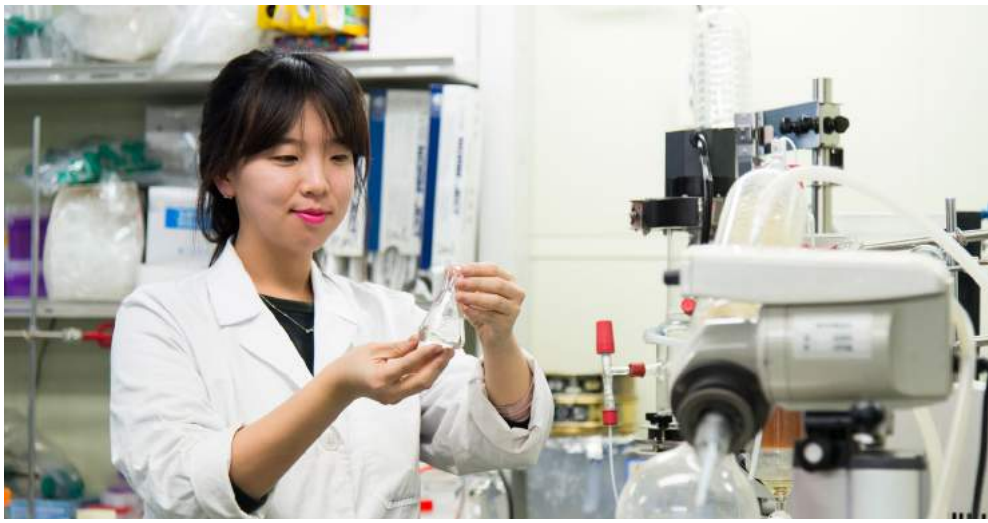
기능성 소재 프론티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길을 찾다

(주)네오크레마

김재환 대표

1999년 설립 이후 기능성 펩타이드, 고순도 갈락토올리고당 등 10여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생산해 온 네오크레마는 얼마 전 무역의 날을 맞아 〈3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식품 강소기업이기도 하다. 일본 시장의 경우 네오크레마의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Creation of Market'의 합성어로 레드 오션이 아닌 새로운 시장 창조를 통해 기업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사명처럼 도전과 성공을 거듭해 온 네오크레마가 2015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과도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6번째 가족이 되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네오크레마가 이어온 Win-Win 스토리와 앞으로의 계획을 네오크레마 김재환 대표에게 들어보았다.



(주)네오크레마는 식욕 억제 및 점진적 체중 감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주는 기능성 소재를 개발, 일본 내 다이어트 기능성 소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 강소 기업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첫번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사업에 특화된 유일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고 주변에 위치한 동일 분야 기업들과 협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보 교환과 물류 절감을 기대하고 있지요. 두번째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진과 연구장비,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나 생산작업이 가능하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네오크레마의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는 어떤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다이어트 제품은 에너지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대사 촉진 효과를 가진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제품들을 섭취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식이량과 운동량의 조절 없이는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네오크레마에서 개발한 〈이트레스(Eatless)〉는 식욕 억제 및 체지방 합성의 억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점진적인 체중 감소를 유도해 주는 기능성 소재입니다. 기능성과 안정성 입증을 위해 여러가지 임상실험을 통한 연구 논문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이트레스를 적용한 제품들은 일본 시장 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통해
> 생산비용 절감계획
> 글로벌 시장진출
> 발판 마련할 것

(주)네오크레마 김재환 대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동기로 식품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가 가진 우수한 인프라와 안전성을 꼽는다.

입주 계약 이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기술 협업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진출 시 참고할만한 사례로서 소개해주세요.

노인성 변비 개선 효과가 있는 올리고당인 〈듀올리고〉를 어렵게 개발했으나 판매 및 수출을 위해서는 성분 규명을 해야한다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올리고당은 2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특정 성분의 정량적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식품클러스터 임시연구소 등과 협업을 통해 미지성분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 분석방법을 확립하게 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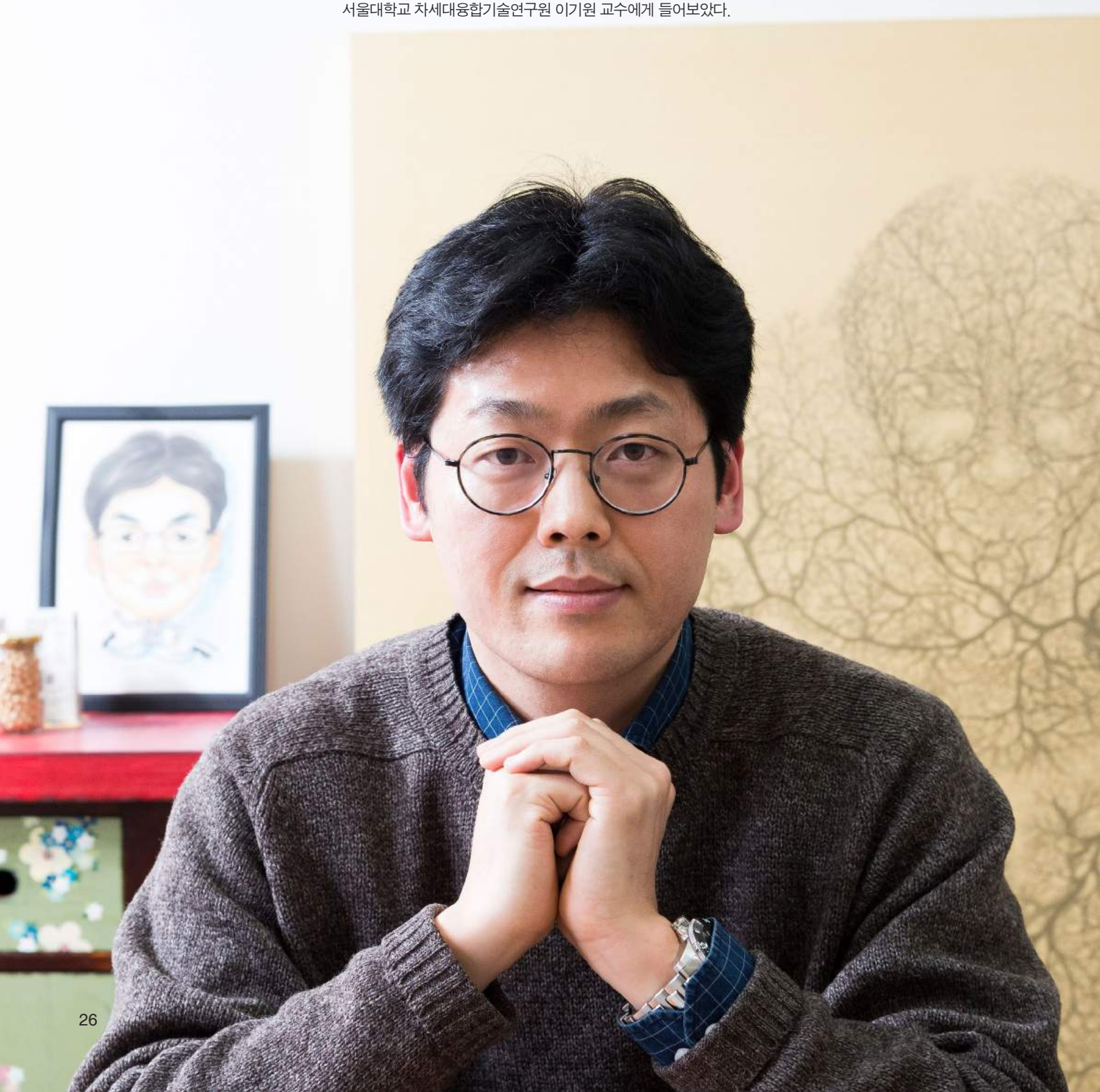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후 네오크레마의 사업계획을 소개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2년 내에 연간 생산능력 3,000톤 이상의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곳 설비를 기반으로 기능성 당류 및 펩타이드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생산하여 내수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설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파워인터뷰

국가식품클러스터?
최초 혹은 최고를 위한 성공 플랫폼!

FTA로 인해 세계 시장의 4분의 3이 개방되는 올해, 식품안전, 융복합 기술, 프리미엄 제품 등
세계적 트렌드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이고도 성공적인 협업이 필수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미래식품산업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기원 교수에게 들어보았다.



대한민국에 구축되는 식품산업단지가 동북아 식품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 구축되는 식품산업단지는 입지적으로 새로운 식품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상품들을 빠른 시간 안에 중국 등의 동북아 식품시장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한국의 수준 높은 ICT 기반으로 문화, 교육,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산·학·연·관의 이상적인 모델을 소개해주세요.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식품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시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성공모델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차별화를 목표로 하는 미션을 정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 그러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선도적인 기술개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산·학·연·관의 연계에 있어 상품성 높은 식품의 개발 시 점검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상품성을 가지려면 최고 혹은 최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 최초라는 단어는 확실한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범위에서라도 최초가 붙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먹어왔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설득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이 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상황에서 왜 그 제품을 만들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맛, 디자인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융합기술 및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상품성 높은 식품 개발은 최초라는 브랜드 개발과 각계 플랫폼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창조농업,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파급 영향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날 ICT기술 발전으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재료에서 상품까지의 모든 과정이 투명해지면서 식품에 대한 관심이 재료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재료는 왜 거기서만 생산되고, 그 음식의 맛은 왜 그 사람만의 손끝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동북아 최대 식품산업단지로서 중앙이 아닌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내 식품원료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이 갖고 있는 차별화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의미를 담은 가공제품, 또 그 제품을 메뉴화 할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비싸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 및 식품이 훨씬 좋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와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내 조성되는
> 식품산업단지는
> 신기술 적용한 신제품
> 빠른 시간 안에
> 동북아 시장 적용할 수 있는
> 전략적 요충지

대한민국 식품산업에 있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국가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은 모든 결과가 국가적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모든 입주기업들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화된 지원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식품기업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여 만들어지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기업들이 실패를 밑거름으로 삼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해외 입주기업 탐방

한국의 유기농 원료로 세계 시장 도전

햄튼 그레인즈 Hampton Grains

안지헌 이사

햄튼 그레인즈의 존곽 대표는 재미교포 출신으로 10년 전 수학교수로 재직 당시 제자가 추출한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의 곡물시장 분석데이터를 통해 미국이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이라는 사실을 접했다고 한다. 이후 농식품산업에 뛰어든 햄튼 그레인즈는 어느덧 3~5만 톤 벌크선(대형 곡물 운반선)을 이용해 한국 제분회사에 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식품원료유통 프론티어로 성장했다. 외국기업이긴 하지만 자체 대형 곡물 운반선을 운영한 것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였다. 햄튼 그레인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해 유통전문기업으로서는 도전하기 힘든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한국의 우수한 유기농 원료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다. 열정적인 도전으로 거대 기업의 각축장인 곡물유통시장 속에서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햄튼 그레인즈의 안지헌 이사를 만나보았다.

햄튼 그레인즈는 직영 농장을 보유한 곡물유통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품목과 유통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햄튼 그레인즈의 업태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밀, 옥수수, 대두, 귀리, 보리 등 곡물을 주력 아이템으로 한 무역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농장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작은 규모이고, 보통은 계약재배나 조합에서 생산된 원료를 구매해서 수출을 하지요. 필요에 따라 식용유, 밀가루, 과자와 같은 제품생산을 위한 가공도 하지만 대부분 OEM으로 위탁합니다.

곡물유통시장은 어떤 분야보다 진입장벽이 높고 메이저급 기업들과 격차가 큽니다. 햄튼 그레인즈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전략을 소개해주세요.

사실 곡물시장의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내 햄튼 그레인즈의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메이저 곡물기업으로 꼽히는 미국의 카길(Cargill), 에이디엠 (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 브라질의 벙기(Bunge)와 그 외 일본 상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 시장의 10~20% 정도가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고자 메이저급 기업들과 같이 생산, 유통, 가공과 관련된 모든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높은 신뢰도를 가진
> 한국의 농산물과
> 동북아 시장 접근성 등
> 원료생산과
> 개발연구 본거지로
> 국가식품클러스터 선택

식품원료인 곡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원재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햄튼 그레인즈는 고품질의 유기농 원료농산물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한 원료 생산 및 개발연구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미국 시장용 기능성 원료 개발 과정 중 해당 원료

햄튼 그레인즈의 안지헌 이사는 한국의 우수한 유기농 원료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성공모델인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나 미국의 나파밸리, 그 이상의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를 추출할 수 있는 농산물을 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농산물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고품질일 뿐만 아니라 안전성 면에서도 신뢰가 높습니다.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햄튼 그레인즈의 기능성 원료 생산 및 개발연구 본거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입지적 측면에서는 동북아 시장 진출에 유리하고 물류환경도 매우 훌륭합니다.

사실 기술집약적 사업형태가 아니다 보니 제품 개발 및 생산라인 구축에 어려움이 컸는데요.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R&D센터가 있어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확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라 신뢰성도 매우 컸습니다.

2015년 4월,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사 진척 상황 점검을 위한 방문 당시 한국의 유기농 농산물을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가공해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의 농산물을 파우더형태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임시연구소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아 곡물의 특정 성분을 추출해 가장 적합한 영양소의 함량을 도출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미 공급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16년에 맞춰 생산설비를 구축하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원재료 확보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 생산가공업체들과 다양한 협의를 진행해오셨는데(㈜푸르메 실무협의, 한국미곡종합처리장협회 상생협약 등) 이후 진행경과를 소개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바로 원료 공급선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푸르메나 한국미곡종합처리장협회 등 지역업체들과 원료공급을 협의할 수 있었죠. ㈜푸르메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에 위치한 혼합잡곡 전문회사로 저희가 필요한 곡물 원료를 공급해주고 곡물 이외 다른 작물을 대상으로 공동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미곡종합처리장협회와는 원료구매형 상생협약을 맺어 현미 등 고품질의 현지 곡물원료를 조달받을 예정입니다.

입주기업으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전략을 제시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현재 한국의 식품산업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긴 하지만 한국에 뿌리를 둔 저희로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네덜란드 푸드밸리나 미국의 나파밸리 등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와 같은 성공모델로 자리잡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나 주변 환경의 조건상 유리한 점이 매우 많으므로 장점을 부각시켜 입주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Reserch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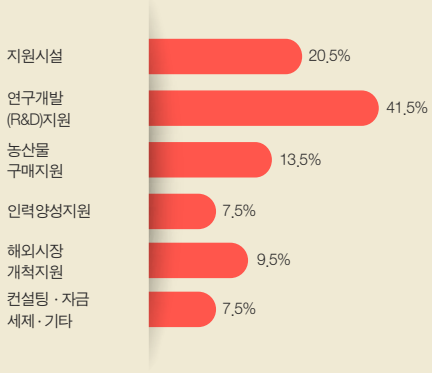
2015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요 및 인식조사 보고

업계 종사자 41.5%,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내용 중 기술지원(R&D) 부문에 가장 관심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국내 식품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지도, 수요, 투자 촉진 요인, 홍보 메시지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사업 추진 및 홍보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식품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 각 200명 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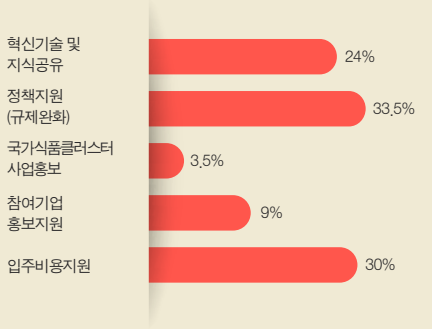
조 사 명 2015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요 및 인식조사
조사기간 2015. 12. 1 (화) ~ 12. 31 (목), 총 31일간
조사대상 전문가그룹 - 전국 식품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총 200명
일반인그룹 - 전국 성인 남녀 총 200명
조사기관 리서치랩

Q.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 내용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은? (식품업계 종사자 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내용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 연구개발(R&D)지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5%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기업들의 경우 생산, 제조, 조리 관련 단기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인력 및 기술력, 시설 부문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듯 투자비용 및 고비용 인력 양성의 부담이 큰 연구개발 분야가 가장 큰 관심사로 꼽혔다. 그 외에도 지원시설(20.5%), 농산물 구매지원(13.5%) 등을 꼽은 응답자도 다수 있어 대부분의 기업에서 품질 및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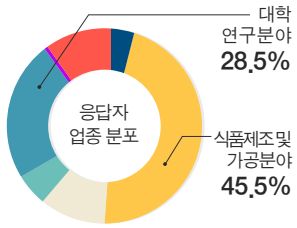
Q.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은? (식품업계 종사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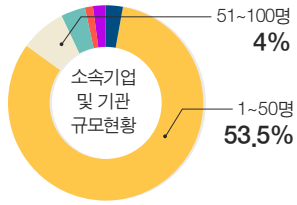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해 식품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으로 응답자의 33.5%가 정책지원(규제완화)을 꼽았다. 정부 주도로 조성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연구개발(R&D) 및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과 우수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체감형 정책이 시행되면 집적화된 산업단지로서의 성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 예상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식품기업의 종사자들이 정책지원을 중요하게 꼽은 것 역시 그런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여론조사 참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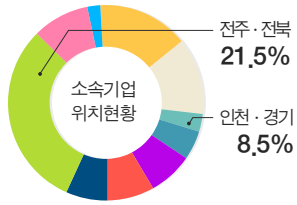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국내 식품기업 종사자 1,026명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최종 200명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했다.



식품원재료생산분야	2.5%
식품제조 및 가공분야	45.5%
식품포장 및 배송분야	8%
식품관련 R&D분야	3.5%
대학/연구기관	28.5%
식품포장 및 배송분야	0.5%
정부기관 및 유관협단체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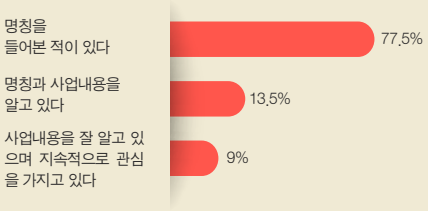


1인 기업	1%
1명 ~ 50명 규모	53.5%
51명 ~ 100명 규모	4%
101명 ~ 200명 규모	2.5%
201명 ~ 500명 규모	3.5%
501명 이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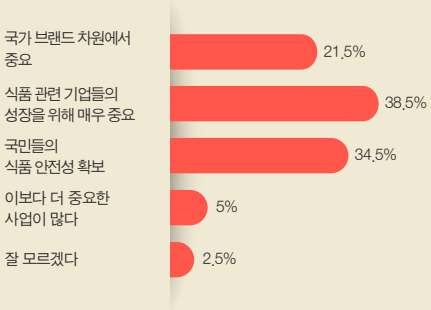
서울	7.4%
인천·경기	8.5%
강원	1.5%
충주·충북	2.5%
대전·충남	5%
대구·경북	5%
부산·경남	4%
전주·전북	21.5%
광주·전남	6.5%
제주	0.5%
기타	0%

Q.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일반 국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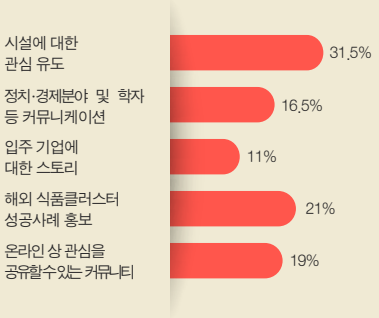
일반 국민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77.5%, 정부 주도의 식품산업단지로써 사업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3.5%로 조사되었다. 2014년 명칭 인지도 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 중 54%의 응답자가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완공 초읽기에 돌입한 현재,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킴과 동시에 사업내용 홍보와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Q.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국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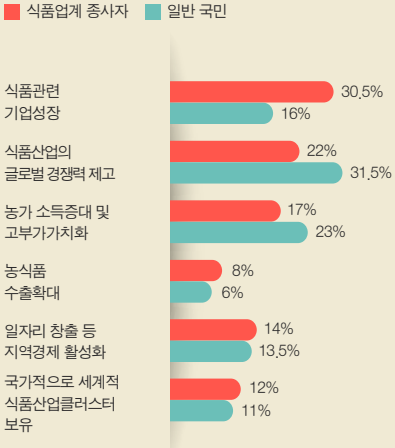
식품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역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의미를 대한민국 식품기업의 성장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가진 중요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5%가 식품 관련 기업의 성장이라고 응답했다. 대한민국 식품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우수성을 알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의견이므로 향후 성과 홍보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Q.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반 국민 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얻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31.5%로 조사되었다. 가벼운 스토리텔링이 대세인 현재 홍보마케팅 트렌드와는 달리 입주 기업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이며 특히, 이해 당사자인 식품기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 여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그외에도 해외 식품클러스터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21%) 및 전문가 커뮤니케이션(16.5%)이 필요하다는 응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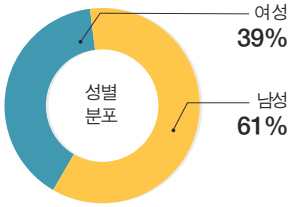
Q.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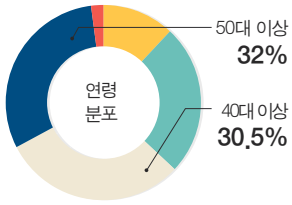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 내용을 비교적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식품 업계 종사자들은 가장 중요한 사업목표로 식품기업의 성장(30.5%)을 꼽았다. 기업의 성장이 담보되어야 식품분야 특화산업단지로서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제품 개발과 성공적인 마케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업계 종사자들 중 "농가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화" 항목을 고른 응답자는 17%로 FTA 발효와 세계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일반 국민 여론 조사 결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31.5%) 가 꼽혔다. 국가 브랜드의 성장에 대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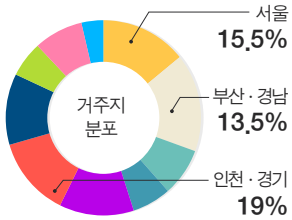
일반인여론조사 참여자 현황

일반인 여론조사는 전국 남녀 2,775명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최종 200명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했다.





10대 이상	1%
20대 이상	10%
30대 이상	28%
40대 이상	30.5%
50대 이상	32%



서울	15.5%
인천·경기	19%
강원	8%
충주·충북	8%
대전·충남	9.5%
대구·경북	11%
부산·경남	13.5%
전주·전북	6.5%
광주·전남	9%
제주	4%
기타	0%

FOODPOLIS NEWS BRIEF

제5회 국제식품클러스터포럼 개최 2015. 11. 17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식품과 과학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제5회 국제식품클러스터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독일, 체코 등 각국 대사, 식품관계자 등 480여 명이 참석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미래역할과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포럼은 농식품부 장관 및 각국 대사의 축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표창, 프라운호퍼IVV 연구소장 기조강연, 기능성식품·품질안전·패키징 등 각 분야별 최신 글로벌 기술소개, 기업맞춤형 1:1 기술컨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실용화가 가능한 최신 식품R&D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국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컨설팅을 진행했다. 식품실용화 R&D 기술 소개를 위해 독일의 식품공정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VV 연구소가 참석하였으며 기조강연자로 나선 호르스트 크리스티안 랑고프스키 소장을 비롯해 캐롤린 하우저 박사, 크리스티안 차켈 박사, 클라우스 놀러 박사, 롤란드 프란츠 박사 순으로 최신 글로벌 식품기술을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는 국내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1:1 기술컨설팅이 이루어져 최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제5회 국제식품클러스터포럼은 식품 실용화가 가능한 R&D기술을 소개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R&D발전방향과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행사가 되었다.

독일 아누가 식품박람회 참가
2015. 10. 10~1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독일 퀼른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아누가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투자유치관을 운영하고 참가기업들의 부스를 방문하며 홍보활동을 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인 아누가 식품박람회는 전 세계 식품업계에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독일의 Reinert, Montepizzacrust 등 약 60개의 독일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상담을 진행하였다.

제14차 세계한상대회 참가
2015. 10. 13~15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제14차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하여 투자유치관을 운영하며 전시회에 참가한 식품기업·유관기관에 대한 홍보, 투자 관심기업을 발굴하고 관심 기업과 1:1 심층상담을 진행, 식품전시회 참가업체 부스를 방문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자료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벌였다. 또한 대회기간 중에 국제 한인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외식산업협회 대상 투자설명회
2015. 11. 5

외식산업계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외식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 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 한국외식산업협회의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외식산업 관련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회장단, 지부장, 사무국장 등 약 80인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배경 및 입주기업들의 주요 인센티브 등을 소개하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다.

FOODPOLIS NEWS BRIEF

주한 대사관 관계자 초청 간담회
2015. 12. 3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해외 식품기업들의 관심을 높이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주한 대사관 관계자 초청 간담회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각국의 대사관 경제·무역담당 상무관 및 참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상황과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특히 대사관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낮은 임대료, 국세 감면 등 해외입주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인센티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각종 행사를 담은 사진 전시를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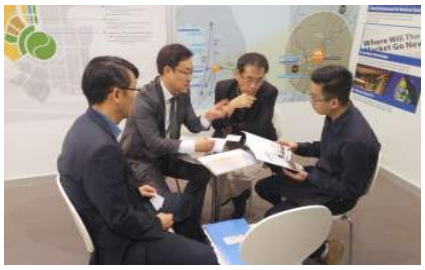
네오크레마 입주계약 체결
2015. 12. 23

1999년에 설립된 기능성 소재 전문 생산기업 네오크레마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네오크레마는 기능성펩타이드, 고순도 갈락토 올리고당 등 10여 가지 이상의 기능성원료 전문 생산기업으로 특수 당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수출을 위한 노인성 변비개선 올리고당을 개발했으나 미지의 성분규명이 어려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연구개발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성분규명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오는 2017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생산시설을 설립, 2017년 하반기에는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프라운호퍼IVV 기술협약 체결
2015. 11. 17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독일의 식품 공정공학 연구소인 프라운호퍼IVV와의기술협약을체결했다. 프라운호퍼IVV는 식품재료 및 가공식품·가공공정·포장재질 개발, 식품포장용 용기 및 포장재질 안전성 평가, 포장폐기물 재활용, 포장공정 및 포장장비개발 등에 특화된 연구기관으로 2010년에 강릉에 한국지소 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제5회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실용화 R&D중심의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 발굴,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싱가포르 아·태 식품 엑스포 참가
2015. 11. 20~23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싱가포르 식품제조협회(SFMA) 주최로 열리는 아·태 식품 엑스포에 참가하여 투자유치관을 운영했다. Chew's Agriculture 등 40여 개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부스 방문 및 심층상담을 통한 유치활동도 전개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정보교류 협력 방안을 증진하였다.

지역 식품기업 사업설명회
2015. 11. 25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주최로 경북, 포항 등 전북 이외 지역의 관심있는 식품기업의 주요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성식품, 청학F&B, 자임트리 등 주요지역 식품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배경과 분양 현황 등 사업을 설명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2015년 일본 동경 투자설명회
2015. 11. 27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2015년 11월 27일 일본 동경 게이오 호텔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일본의 식품기업 35개 사를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지원시설 및 연구지원제도, 인센티브 등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으며, 일본기업들은 특히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투자가이드

FOODPOLIS Frequently Asked Questions

많은 기업들의 상담사례 중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 계획 및 입주조건, 정주환경 등 가장 많은 질문을 바탕으로 구성한 FAQ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계획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분양무료상담(1688-8782) 창구를 이용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술지원시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 플랜트 등 4개의 기술지원 특성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품품질안전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의 식품 안전 검사와 기호적 품질 분석을 지원하고,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에서는 건강기능성식품 인증 획득 지원 및 기능성 식품의 제품화 등을 지원합니다. 식품패키징센터에서는 포장재질의 검사 및 유통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파일럿 플랜트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시제품 제조 등이 이루어집니다.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술지원계획이 궁금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 기업 수요에 기반을 둔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기업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과 전문 코디네이션 기능을 통해 분석·연구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해 R&BD 체계를 더욱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산 · 학 · 연 네트워크는 전북지역에 소재한 식품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 및 전 세계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 · 학 · 연 네트워크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갖추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식품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품연구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성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식품의 안전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식품기업들의 식품안전성 검증을 위한 인력 배치와 장비 구축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식품안전검사분석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식품품질안전센터에서는 전문 위생검사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자가품질검사부터 GMO, 노로바이러스 등 신종유해물질에 대한 특수검사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검사 및 분석을 지원합니다.

입주기업은 제품 관리를 위한 검사비용이 절감되며 신속하게 지원되는 검사를 통해 출고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원료 농산물 조달계획이 궁금합니다.

국내 농산물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입주기업과 산지 생산자를 연결해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의 원료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의 산지 조합 · 법인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 농산물 산지 정보체계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전산망과 연계하여 입주기업들이 국내산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 등 간척지를 입주기업의 원료 공급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내외 투자기업의 자격조건을 알려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용도별로 산업시설 · R&D · 기업지원시설 · 테마파크 · 기타 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식료품제조업 · 음료제조업 · 연관산업 등 구역별 입주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지역(FIZ: Foreign Investment Zone)은 국가나 일반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중 · 소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일정 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주로 임대목적의 부지로 운용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 요건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2조에 의거해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50년 범위 내에서 매 10년마다 갱신됩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기업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는 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되며 지방세는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자본재에 한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임대료를 감면받고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체코 프라하의 골드, 미국의 햄튼 그레인즈와 웰 스프링, 케냐 골드락인터내셔널, 중국의 차오마마와 위해자광생물과기개발 등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한 해외식품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나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시에는 투자유형과는 상관없이 임대료, 관세, 부가세 등을 감면 받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감면 등은 외투비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 지분율을 갖고 직접 회사를 설립하는 단독투자에 비해 2인 이상 법인 및 단체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한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적습니다.

비자 발급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단순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는 비전문취업 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 비자와 방문취업비자 외에도 일반연수비자(D-4)와 부서장급의 전문 인력에게 발급하는 기업투자비자(D-8), 숙련기능인력에게 발급하는 특정활동비자(E-7)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노동부에 '외국인고용허가업체'로 등록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여부를 결정한 후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발급신청서'를 발급받고, 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취업비자와 방문취업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주거 환경 및 문화 시설 등이 궁금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서쪽 지역에 약 36만 평에 이르는 식품문화복합도시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식품문화복합도시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문화 · 관광용지, 식품비즈니스파크, 교육 및 기타 시설 등 5개 권역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주거용지에는 체험형 관광기능이 강화된 한옥마을, 유럽마을, 슬로푸드마을 등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에는 글로벌 식품스트리트몰이, 문화 · 관광용지에는 식품과 관련된 체험관, 전시장, 박물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공원 등도 인근시설로 설치될 예정으로 식품산업단지와 연계한 자족형 복합도시가 구축될 것입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안)」 2012)

투자 관련 상담 문의

1688-8782

www.foodpolis.kr